

나주시, 인기 유튜버와 협업 '나주배 디저트' 2종 개발

젊은 세대 취향 고려한 곱탕 모양 초콜렛·퓨레 우유 배부 행사 전국 구독자·주민 등 400여명 몰려 대성황

나주시가 인기 유튜버와 함께 젊은 세대를 겨냥한 '배 디저트'를 개발해 주목을 끌고 있다. 나주시에 따르면 구독자 71만 유튜브 채널인 '가요이 키우기'와 협업을 통해 최근 동천공원에

서 배 디저트 2종 배부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선보인 디저트는 '나주곶감 모양 초콜렛', '배 퓨레 우유'로 배를 재료로 젊은 세대 입맛과 취향을 고려해 해당 유튜버가 직접 개발했다.

디저트 배부 행사엔 전국 각지 유튜브 채널 구독자와 관광객, 주민 등 400여명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시는 가요이 키우기 채널에 나주 홍보영상 2편을 제작·업로드해 관광지와 특산품, 먹거리 등을 소개한다.

앞서 10월 29일 나주역, 나주배박물관, 금성관, 영산강 정원, 나주곶감거리 등 주요 관광지 탐방으로 구성된 1편이 올라왔으며 현재까지 조회수 20만을 달성했다.

배 디저트 개발과 배부 행사를 다루는 영상은 11월 말 공개할 예정이다.

서내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많은 젊은 사람을 본 것이 정말 오랜만인 것 같다"며 "이번 기회로 나주배가 전 연령층에 걸쳐 사랑받는 대표 과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영상 콘텐츠를 통해 맛과 건강에 으뜸인 나주배의 다양한 활용성은 물론 관광 명소를 홍보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해 우리 지역 농특산물을 다각적으로 홍보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곶감 모양 초콜렛 디저트.

〈나주시 제공〉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지난 7일 화순 청풍초등학교에서 열린 학예회 장면.

아이들이 만들었어요... 화순 청풍초 영화제

'폐교' 등 2편 상영 박수 갈채

화순의 작은학교인 청풍초등학교에서 학예회와 함께 창작 영화제가 열렸다.

화순 청풍초에 따르면 2024 교육과정 발표 및 영화 상영회를 지난 7일 개최했다.

행사는 학부모·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 학생들의 멋진 공연과 창작 영화를 감상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밴드부의 식전공연과 1학년 학생들의 첫 인사 무대를 시작으로, 영어회화·무용·바이올린·피아노 등 다양한 공연이 이어졌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시나리오 작년부터 촬영·촬영까지 참여한 영화 '폐교' '슬픈 바이러' 2편이 상영돼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김효관 화순 청풍초등학교 교장은 "우리 학생들이 보여준 멋진 공연과 작품은 그동안 교직원들과 학부모들의 뜨거운 관심과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강진군, 착한가격업소 지역상품권 결제 5% 환원 혜택

모바일·카드 상품권 한정

강진군이 행정안전부에서 불안정성을 위해 지원하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14개소에 대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1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소비자가 착한가격업소에서 모바일·카드강진사랑상품권으로 결제 시, 결제금액의 5%를 캐시백으로 적립받는 방식으로 5000원 이상 결제 시 최대 월 5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모바일·카드 상품권으로 결제 시에만 할인이 가능하며 지류 상품권은 할인되지 않는다.

대상 착한가격업소는 우정식당, 거목촌식당, 청자골식당, 가족회관, 궁전한우촌, 보리수식육식당, 암소한마리, 우정식당, 금성식육식당, 판자촌, 강진갑곡수, 행복한밥상, 장가네한우곰탕, 모아미용실로 총 14개소이다.

군은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확대하고 있으며 지정 대상은 자영업 개인사업자로 생활과 밀접한 업종으로 주민들에게 직접 소매 단위로 물품·서비스를 판매하는 업체로, 가맹(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지정이 불가하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은 강진군 소재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서비스 업종 가운데 평균 가격

격 미만에 해당하는 메뉴가 2개 이상이어야 하며 인근 상권 평균 가격 대비 저렴하고 이용 만족도는 높아야 한다.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된 업소들은 인종 표찰과 함께 70만원 상당의 쓰레기봉투를 지원받으며 시설개선 및 장비 교체 비용 또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강진군 강진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모와 불안정, 가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착한가격업소를 지속적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h@kwangju.co.kr

장흥군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선정

내년부터 성장 '통' 프로젝트

장흥군은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청소년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에 대한 정책 지원 사업으로, 청소년에게 다양한 성장 기회를 제공해 지역 활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확보한 사업비 2억원으로 장흥청소년수련관과 함께 성장 '통' 프로젝트를 2025년부터 추진한다.

장흥군의 성장 통 프로젝트는 지역 특산물과 문화 자원을 적극 활용한 차별화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 1억원으로 청소년 시설 유휴공간 일부에 '청소년 전용공간'을 조성해 심이 있는 자유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지역의 풍부한 자연과 문화를 경험하며, 스스로 역량을 키울 기회가 될 것"이라며 "청소년들이 고향에서 꿈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나주문화재단 대표이사 등 임원진 공모... 19일까지 접수

나주시는 오는 19일까지 지역 문화 예술 정책의 발굴 및 중장기 사업을 추진할 문화재단 임원진 공모에 나선다.

대표이사 1명을 비롯해 이사 11명, 감사 2명 등 14명이다.

나주시는 임원 공모 뒤 창립총회와 정관 의결, 법인 설립, 직원 채용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재단 출범식을 가질 계획이다.

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예술자원 전반에 대한 조사와 진단, 문화예술 분야 정책 개발, 창작·보급 활동 지원,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전문 인력 양성, 문화자원 보존, 기금 조성 및 운용 등을 맡게 된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장흥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준공 본격 가동

농업인 가공창업 활동 지원

장흥군이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준공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총사업비 19억5천만원 을 들여 장흥군농업기술센터 내 부지에 지상 1층, 연면적 390㎡ 규모로 건립됐다.

지역 농업인의 가공창업 활동을 통한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사용된다.

주요 시설은 위생전실, 전처리실, 습식·건식 가공실, 포장실, 건조실, 착유실 등을 갖췄다. 음료·

농축액, 젤리, 건조 분말 등 농산가공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47종 57대의 가공 장비를 구축했다.

농산물 가공에 대한 아이디어는 있지만 가공시설을 갖추지 못한 농업인이 공동 가공시설을 이용해 시제품을 생산하고 상품화하도록 돕는다.

창업교육, 기술개발·기술이전, 시설·기기 공동 활용, 전문가 풀 구축 등으로 창업 준비부터 자립 경영까지 종합적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지역 농산물 가공 유통 판매를 지원하고 기술이전을 통해 6차 산업 활성화로 다 같이 잘사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담양군, 대나무 펄프 제작 종이컵 지원

중 자매결연지 제작 25만개 수입

카페 등 배부...관광과 신청 접수

담양군이 중국 자매결연도시에서 생산한 대나무 펄프로 제작한 종이컵을 수입해 지역 소비에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담양군과 자매결연 협약을 맺은 중국 쓰촨성 의빈시와 교류 협력 사업의 하나로, 양 도시 간 우호협력과 상생발전을 위해 추진됐다.

현재 종이컵 및 뚜껑 25만 개를 제작해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식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쳐 수입 완료했다.

종이컵과 뚜껑은 관내 음식점과 카페 같은 식품 접객업소 및 종이컵을 사용하는 소매점 등에 지원될 예정이다. 현재 담양군 관광과에서 사용 희망 업소 신청을 받고 있다.

의빈시에서 제작한 종이컵과 뚜껑은 대나무 펄프를 원료로 제작했으며, 종이컵의 디자인 또한 담양을 상징하는 대나무를 담았다.

대나무는 다른 펄프용 목재에 비해 높은 광합성 효율을 가져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흡수해



담양군이 지원할 대나무 펄프 종이컵.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고, 이를 활용한 용기는 매립이나 소각 시에도 유해 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탄소 저감에도 탁월하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관내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카페에 대나무 종이컵을 지원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더 나아가 우리 군의 대표 관광 아이টে็ม으로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깨끗하게 즐길 수 있는 음식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hdh@kwangju.co.kr

함평군, 자투리 공간 활용

신규 주차장 조성...309면 확보

함평군이 함평읍과 손불면 시가지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신규 주차장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함평읍 하나로마트 인근과 전통시장 주변의 유휴지를 정비하여 주차장을 확충해 왔다. 최근에는 함평읍 에이스노래방 뒤편(함평읍 내교리 일원)과 손불면 소재지의 방치된 폐가(손불면 대전리 일원)를 정비해 각각 20대와 17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를 통해 함평군은 지난해부터 총 309면의 주차 공간을 새로 확보했다.

함평군은 늘어나는 자가용과 불법주정차로 인해 군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휴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가적인 주차 공간을 확보해 군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 사업은 깨끗한 시가지 경관을 조성하는 동시에,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편리한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본 사업이 지역 상권 활성화와 군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